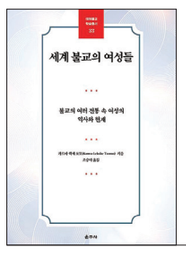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은 과학 발전을 토대로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불교의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술총서와 문화총서를 아우르는 '대원불교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대원불교학술총서 시리즈 3권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제약 넘어 새 지평 연 여성 불자들



세계 불교의 여성들
카르마 렉세 쏘모 지음
조승미 옮김
운주사
2만2000원

초기 불교부터 현재까지
'불교와 여성' 역할 고찰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세계적인 비구니 수행자이자 불교학자인 카르마 렉세 쏘모(Karma Lekshe Tsomo) 스님이 불교 전통 속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변화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쏘모 스님은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연대와 교육, 수행, 사회참여를 위한 모임 '사캬디타(Sakyadhita) 인터내셔널'을 설립하는 등 국제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책에서는 불교의 다양한 전통 안에서의 여성 수행자와 재가 여성들의 위치와 수행 방식을,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핀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다중 시공간 비교'다. 저자는 초기 인도불교에서 시작해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서구까지 시야를 확장하며 각 지역과 시대마다 여성 수행자에게 부여된 규범과 기회를 상호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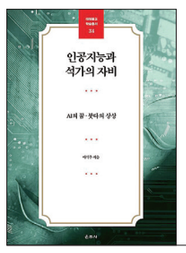
1장 '초기 인도불교에서의 여성'에서는 초기 불교 여성들의 존재와 문헌 속 묘사를 분석한다. 2장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 여성'에서는 상좌부 불교의 여성관과 제도적 현실을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3장 '동아시아의 불교 여성'에서는 중국 초기 불교에서 여성 출가 제도의 형성과 깨달음 논쟁, 한국불교의 비구니 승단 설립 역사와 재가 여성 불자들의 활동, 일본의 비구니 승단 등을 살핀다. 4장 '내륙 아시아의 불교 여성'은 티베트 여성 수행자의 역사와 비구니 구족계가 전승되지 않는 나라에서의 교육과 수행 현실을 보여 준다.

'서구의 불교 여성'(5장), '문화를 넘어선 여성 수계'(6장), '풀뿌리 혁명: 불교 여성과 사회 운동'(7장) 등도 살필 수 있다.

저자는 "깨달음은 성별을 초월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성취이고, 여성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각으로서 인류를 해방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교와 여성'에 대한 초국가적 대화 확산을 기대했다.

AI,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이석주 지음
운주사
2만7000원

AI시대, 불교 역할 모색
'자비'로 '인간지능' 회복

인공지능(AI)은 '다가온 미래'다. 교육·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고, 그 영향은 혁명적이다. 편리함과 효율성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불안과 질문도 커진다. 인간의 존엄과 윤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술 발전이 불러온 불평등과 소외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는 이러한 물음에 불교적 사유를 더해 답을 모색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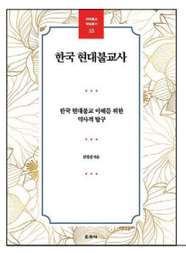
저자는 AI가 야기하는 윤리적·정신적 문제에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며 △인간 의식의 전환 △기술과 가치의 재정립 △진화의 방향성 △공간 인식의 변화라는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AI를 '우리 시대의 거울'로 바라본다. AI가 보여 주는 데이터의 직접, 연산의 정확성, 그리고 무감각한 판단 구조는 곧 인간 욕망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인간이 투영한 욕망이 기계 안에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무명(無明)과 집착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에 주목한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욱 공허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아·무상·연기·자비는 인간다움의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초지능' 앞에서 인간은 기술 경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자비의 윤리'를 통해 '인간지능'을 회복함으로써 기술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해탈과 자비는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윤리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격동의 현대사 속 자각과 실천



한국 현대불교사
김경집 지음
운주사
2만3000원

광복 후 80년 한국불교사
갈등과 도전 사이의 '자각'

〈한국 현대불교사〉는 광복 직후부터 21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여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정리한 연구서다. 사건의 나열이나 연대기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한국불교가 마주한 내부 갈등과 외부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불교적 자각과 자주적 개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탐색한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일제강점기 불교의 친일화와 저항, 광복 직후의 봉암사 결사, 정화운동과 종단 재편, 10·27 법난과 자주화 운동, 1994년 범종추 개혁운동 등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사회·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살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불교계 내부의 갈등과 권력 투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부분이다. 종단 분열, 권력 집중, 폭력 사태와 소송 등을 기술하고 이를 오히려 불교적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이자 새로운 전환을 가능케 한 동력으로 평가했다.

또한 저자는 불교의 사회적 확장을 조망하며 학문적 토대 마련과 불서 출판, 군·청년 포교, 해외 전법 활동,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불교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자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짚어 낸다. 이는 불교가 사회와 호흡하며 시대적 과제를 감당해 왔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직면한 출가자와 신도의 감소, 탈종교화 등의 위기와 마주하며, 불교가 다시금 본래의 사상과 수행, 제도와 문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 종교 책 읽기

누구에게나 영성이 필요하다



나의 오래된 순례, 마돈나하우스
주은경 지음
플로베르 / 1만8000원

마돈나하우스. 이름만 들어서는 뭘 하는 곳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은 이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가톨릭 영성 공동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이자 시민교육가로 밤낮없이 활동하던 저자는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마돈나하우스로 향한다. 몸과 마음을 쉬고 싶었을 뿐,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앞서 저자는 다큐멘터리 기획을 위해 5박 6일 과정의 불교 수행 프로그램 '동사섭(同事攝)'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때 '자비와 대원(大願) 명상'으로 "이미 이룬 것에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아니며, 내 기쁨도 내가 아니며, 내 슬픔도 내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얻었지만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캐나다 가톨릭 공동체의 생활
"성장을 돕는 친절한 관계망"

그러던 어느 날 긴장과 피곤이 겹치는 작가 생활로 갑자기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는다. '특별한 원인 없이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과 피로가 지속되는 질병'이다. 40대 중반,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에 '남녀 평신도와 사제로 구성된 가톨릭 공동체'로 떠났다.

마돈나하우스는 러시아 출신의 캐서린 도허티가 1947년 설립한 가톨릭 공동체로, 그는 1985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20여 명의 사제, 130여 명의 남녀 평신도들과 함께 이곳을 운영했다.

생활은 단순하다. 아침 6시 45분 기상, 오전 8시 아침 미사, 8시 30분 아침 식사, 9시부터 작업이다. 게스트들은 그날의 업무 배치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돕거나, 양초·옷감·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거나 목공예를 하는 식이다. 12시 점심 식사, 오후 작업, 5시 15분 저녁 미사, 6시 저녁 식사가 이어진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에는 30분간 티타임을 갖고 '영적 독서'를 한다. 밤 10시 30분부터는 '침묵의 시간'으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기도하고 11시에는 모두가 잠자리에 든다. 식자재와 생필품 대부분은 농장과 작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데, 이 모든 활동을 성직자와 평신도, 게스트들이 함께한다.

단조로운 일과지만 서툰 언어와 낯선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다툼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따뜻한 대화와 기도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준다.

저자는 책에서 마돈나하우스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2006년 정식 스태프가 된 한국인 주은 씨, 12년간 평신도로 일하다 사제가 된 키에렌 신부 등을 인터뷰하며 마돈나하우스의 철학인 청빈·순결·순명의 의미를 새긴다.

어학연수를 왔다가, 자원봉사를 왔다가, 외국 생활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등등 나름의 사연으로 이곳에 머문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겨우' 두 달 간의 머묾이었지만 마돈나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저자가 '공동체의 모델'을 그릴 수 있게 했다. 2021년, 정년퇴직 후 남원 실상사 앞마을로 거처를 옮긴 저자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만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즐겁고 친절한 관계망을 만드는" 그만의 공동체를 일구고 있다. 여수령 기자

